

新知識社會를 대비한 大學圖書館의 效率的인 MODEL研究

木浦大學校 圖書館

丁 芬 道

〈 목 차 〉

I. 시작하면서	1. Homepage運營
II. 現, 圖書館의 限界	2. Homepage작성시 留意事項
III. Intranet과 圖書館	V. 21C 圖書館 模型
1. 圖書館과 Internet	1. IMS構築
2. Intranet概念	2. 情報蓄積
3. Intranet導入背景	3. SDI서비스
4. Intranet效果	VI. 司書의 役割과 方向
5. Intranet構築	VII. 끝내면서
IV. 大學圖書館 Homepage運營	〈 參考文獻 〉

I. 시작하면서

現代社會를 産業社會에 比喩하여 情報社會라고 하는데, 情報社會의 始作은 2次世界大戰 直後부터라고 現代人들은 普通 말하고 있다. 産業社會와 情報社會의 가장 큰 差異點은 産業社會에서는 資本과 土地, 勞働이 生産手段으로 認定되어 왔지만 情報社會에서는 Data情報가 새로운 生活方法으로 摸索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로 보아 우선 圖書館에서 꼭 必要한 것은 Data情報에 關聯된 資料를 얼마나 많이 所藏하고 있는가를 把握하는 일이다. Data정보를 管理의 가장 중요한 資源으로 活用하고 있는 先進圖書館에서의 한결 같은 共通點은 組織內에 Data情報

資源活用System을 構築하여 司書들에 의해 Data情報를 收集하기도하고 司書들을 통해 Data情報를 分配하는 作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情報를 知識과 比較하여 보면 情報는 意味있는 形態로 組織된 모든Data를 가 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知識은 情報를 利用하여 高附加價値를 最大限높인 것이 라고 할 수 있는데 情報는 사람이 읽거나, 이해하거나 解釋하거나, 특정한 職務에 適用할 때 情報로서 變形되고 知識은 經驗者들이 배웠던 것을 實行에 옮길 때 그 眞價가 發揮된다. 知識을 어떤 職務에 適用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情報의 形態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個人은 똑 같은 情報를 理解하여 職務에 適用시켜 새로운 意思選擇을 하거나 實驗을 成功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똑 같은 知識을 가지고 새로운 方法으로 情報에 適用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情報를 가지고 應用하는 사람들에 따라 여러 가지 情報로서 發展할 수 있는 것이 이 둘의 差異點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의 目的으로 現在 圖書館의 限界를 알아보고, 새로운 圖書館 模型인 Intranet에 대해 그 概念과 導入背景, 效果에 대해서 分析 및 研究하여 보았고 Intranet構築에 대하여 기술하여 보았다. 또, 圖書館 Homepage運營과 留意事項에 대해서도 部分別 見解를 밝혔으며, 向後 司書의 役割에 대하여는 明確한 정의를 내 려 보았다.

Ⅱ. 現, 圖書館의 限界

圖書館은 既存의 印刷形態의 情報이외에 無形의 情報가 生産性 向上에 必學的이라 는 認識이 급속히 擴散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無形의 資産 즉 情報를 蓄積하고 分配 하는 일을 할 새로운 System이 必要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System이 바로 情報管理System이고 이를 運營하는 곳을 情報管理Center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情報管理Center와 같은 役割을 해온 機關으로 圖書館이 있었지만 既存圖書館은 주로 印刷形態와 같이 整形化된 情報를 管理하는데 重點을 두었기 때문에 各 構成員들이 가지고 있는 非整形化된 情報를 蓄積하는 일과 分配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Internet과 WWW의 쉬운 出版方法으로 인하여 이러한 障礙物을 한꺼번에 除去하게 되어 組織에서 構成員들은 情報의 生成, 蓄積, 接近을 One-stop으로 活用할 수 있게 되었다.

Data情報를 찾는 User들은 이제 活用할 수 있는 Data情報도 하나의 좁은 地域에

있는 몇몇 圖書館에만 限定되는 것이 아니라 全 地球에 있는 모든 圖書館 資料를 利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Internet에 있는 수많은 Current Contents(速次目錄)資料들도 함께 活用할 수 있게 되어 圖書館이라는 概念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 지금까지 所藏資料 爲主로만 利用者에게 情報Service를 하던 傳統的인 意味의 圖書館은 더 이상 存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圖書館은 보다 더 넓은 範圍에서 高附加價値의 情報를 收集하고 새로운 情報를 蓄積하여 利用者들이 必要한 새로운 情報를 適時에 提供할 수 있는 體制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利用者들의 要求에 符應하기 위하여 各 圖書館들은 Internet을 導入하여 1)圖書館 Intranet運營 2)圖書館 홈페이지 維持管理 3)Data情報資源의 Digital化 作業 4)Internet을 包含한 利用者 情報能力教育 5)假想 圖書館의 參考奉仕 6)E-mail과 Push技術을 利用한 SDI Service 7)DataBase構築作業 8)Digital情報의 蓄積 및 管理等的 새로운 業務를 계속 開發하고 있다.

이와 같은 作業은 대부분 圖書館의 既存 業務이외에 組織에서 發生한 知識情報와 外部에서 收集한 知識情報를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필요한 構成員들에게 提供해 주는 보다 積極的인 圖書館Servic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런 새로운 業務를 開發하면서 情報管理Center로서 그 技能을 최대한 發揮하는 圖書館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대부분의 圖書館은 舊 方式대로 所藏하고 있는 情報範圍內에서 消極的인 圖書館 奉仕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大學圖書館은 네트워크로 連結되었지만 네트워크 時代에 어울리는 圖書館業務를 開發하지 못하고 대부분 既存 圖書館서비스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물론 人力問題를 비롯하여 利用者들이 圖書館에 관한 認識問題等的 여러 가지 障礙要素가 많지만 電算化를 이루었다고 하여도 利用者들과 司書들에게는 認識이 不足한 실정이다. 先進國은 이미 情報社會에 완전히 進入하여 資料를 研究, 電算化된 圖書館을 積極的으로 活用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이제 情報社會로 接近하고 있는 中이고 知識情報에 대한 Mind가 不足하여 先進國만큼 活潑하지는 않다. 따라서, 整形化된 情報와 非整形化된 情報를 모두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情報System을 갖추는 것이 必要하다. 21世紀의 圖書館 模型은 情報社會에서 情報를 創出하고 蓄積 및 配分하는 情報管理센터로서 役割을 다하여 大學發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部分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Intranet과 圖書館

1. 圖書館과 Internet

圖書館과 Internet은 利益을 追求하지 않으면서 User들이 언제든지, 그리고 便利하게 情報를 利用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는 면에서 同一하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傳統的인 圖書館과 마찬가지로 Internet도 중요한 情報員으로 認識하고 있기 때문에 Internet과 傳統的인 圖書館의 結合은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 보다 더 效率的인 Service를 하기 위하여 많은 技術들을 開發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nternet과 圖書館의 結合인 圖書館 Intranet이다. 이 結合으로 인하여 User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圖書館 資料를 檢索할 수 있으며 活用할 수 있는 Data들도 좁은 範圍에서만 限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全世界를 對象으로 넓혔으며 遠거리에 있는 User들은 圖書館 利用을 위해 직접 訪問할 必要없이 자신의 E-mail로 직접 받아 볼 수 있게되어 많은 時間을 節約할 수 있다.

Intranet이란 大學과 같은 組織內部的 모든 業務를 Internet關聯 技術로 處理하는 概念의 새로운 Network環境으로서, TCP/IP를 支援하는 LAN環境에서 構築하여 Internet과 同一한 웹브라우저를 使用하여 그룹웨어를 使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特徵이다. 이것은 Firewall(防火壁)과 같은 一種의 保安裝置가 되어 있어 內部에서는 外部의 Internet情報에 쉽게 접할 수 있지만 外部에서는 大學과 같은 組織 內部的 情報에는 接近이 源泉의으로 遮斷되어 있고 다만 許諾한 사람에 한하여 內部情報에 接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大學에서는 Intranet을 活用함으로써 大學內 各種 情報資料를 On-Line化하여 情報를 公有하고 大學內外의 情報接近을 容易하게 하여 組織內 意思疏通을 원활히 하여 研究活動 向上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모든 部署가 Intranet밑으로 다 흡수하게 되어 情報를 公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새로운 Service를 創造하기 위한 하나의 共同體로도 活用할 수 있는 同時에 組織의 細胞膜과 같은 役割을 하고 있다. 또, Intranet은 User들로부터 直接 多樣한 意見을 聽取할 수 도 있다. 圖書館電算化도 Intranet形態로 轉換해야 하는 理由는 圖書館에 勤務하는 司書들에게는 圖書館 內外情報에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하고 圖書館 User들에게는 圖書館에서 提供하는 모든 情報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情報生活을 원활이 하고자 하는데 있다.

2. Intranet概念

Intra(내부의) + Net(네트워크)를 합친말인데 Internet技術을 그대로 活用할 수 있어 内外部에서 組織의 情報公有System을 驅動할 수 있다. 大學圖書館 組織內部的 모든 業務環境을 LAN 環境에 焦點을 맞추어 Internet關聯 技術로 處理하는 새로운 概念의 Network環境이지만 Internet과 同一한 브라우저상에서 그룹웨어를 活用할 수 있게 되므로 LAN環境의 Internet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大學들이 電算 System을 갖추었다가 이제는 大學公同望을 構築, Internet과 連繫시킴으로서 大學의 學問研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Intranet은 既存의 E-Mail, 電子文書決裁技能, 揭示板技能, 遠隔會議 技能, 인하우스DB活用技能 以外에 On-Line出版, On-Line教育, 外部Internet情報利用, 外部에서 인하우스DB利用技能等이 더 追加되어 있다.

3. Intranet導入背景

大學에서 情報은 대부분 構成員 各者の 研究와 經驗에 基盤하기 때문에 各 大學은 研究開發에 많은 資金支援을 한다. 그러나 大學이 投資하여 蓄積한 DB情報를 保有한 個人이 所屬을 옮길 경우 그 동안 大學에서 投資한 部分은 回收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大學과 같은 어떤 組織에서 個人이나 組織이 保有한 非定型化된 情報를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保管하였다가 必要한 경우 大學內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活用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IMS이다.

IMS(情報管理System)에서 다루는 情報에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情報의 內容에 따라 分類해보면, 學問的으로 明瞭한 情報과 애매하고 經驗的인 情報 들로 나눌 수 있다. 根據明瞭한 情報란 쉽게 表現이 可能하고 記錄이 可能하여 解釋이 쉬운 것을 말하고 經驗的인 情報란 意味가 不分明하여 直接 面談을 하거나 電子會議室이나 討論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DB情報를 가리킨다. 또, 入手되는 經路에 따라 分類해보면 內部情報와 外部情報로 크게 나눌 수 있다. 內部情報에는 組織構成員들이 업무수행 과정 중에 얻는 經驗과 노하우를 蓄積한 것이다. 어떤 業務를 하다가 新情報資料가 入手가 되었다면 擔當者는 이 DB資料를 分析하고 整理해 情報管理

System에 蓄積하면 다른 部署에 있는 사람들이 公有할 수 있고 그 後任者는 그 資料를 바탕으로 보다 더 深度 있는 情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外部情報은 外部의 各種 DataBase로부터 收集할 수 있는 것들이다. 새로운 情報을 일정한 形態를 갖추어 蓄積하면 언제 어느 部署에서라도 業務에 쉽게 活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技能을 하는 情報管理System은 草創期에 大學爲主로 開發되었지만 이 제는 모든 組織에 擴大 適用되고 있는데 모든 組織에서 情報管理System을 導入하는 背景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活用할 수 있는 情報의 大幅的인 增加 2)情報의 급격한 附加價値에 따른 時間不足 3)繼續的이고 새로운 情報가 必要 4)중요한 情報가 死藏될 수 있다는 걱정 5)情報에 接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方法의 增加 等…… 위와 같은 여러 가지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電子文書管理System (EDMS)이나 Intranet 혹은 공동망을 利用할 수도 있다. 그러나 Intranet이나 공동망은 Data情報를 가진 사람과 Data情報를 必要로 하는 사람을 連結시키는 仲介 役割을 하는 것이 주요 任務이고 情報를 貯藏하는 것이 目的이라면 DBMS로도 充分하다. 또 Data情報를 收集하는 일만이 必要하다면 各種 檢索엔진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IMS는 Intranet, 공동망, 檢索엔진, EDMS, DBMS, 圖書館과 같은 多樣한 要素들을 結合한 結晶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大學圖書館은 열심히 研究하는 教授와 學生들을 위하여 보다 많은 情報과 知識을 提供할 수 있는 System을 갖추어야 한다. 效率的으로 管理할 수 있는 圖書館System의 導入이 절실한 때이다.

4. Intranet效果

첫째, Intranet으로 가장 큰 效果를 볼 수 있는 分野는 바로 參考奉仕分野가 된다. 利用者는 Homepage와 E-mail을 利用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圖書館 資料에 接近할 수 있고 參考司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世界的인 Internet망을 使用하기 때문에 世界的 모든 圖書館과 協力體系가 圓滑하다.

셋째, Homepage를 利用하여 圖書館의 各 部署別 日日業務, 週間業務, 月間業務, 年間業務別로 業務計劃表를 内部的으로 公開함으로 業務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으며 個別的으로 擔當하고 있는 業務를 明確히 할 수 있다.

넷째, Internet의 各種 意思傳達機能들 즉 E-Mail, 揭示板, 畫像會議技能등을 活用하기 때문에 組織內 意思疏通이 圓滑하게된다.

다섯째, On-Line出版으로 全體職員들을 教育할 수 있게 된다. 특히 變化가 심한 情報關聯分野에 보다 많은 司書들에게 教育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여섯째, 司書들은 웹브라우저로 世界の 主要 圖書館들의 變化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圖書館 發展에 많은 影響을 끼친다.

또한 Intranet을 導入함으로써 새로운 情報要求者들로부터 多様な 意見を 直接 習得할 수 있는 方法도 있다.

Network時代에서는 圖書館自動化Program만으로 圖書館을 獨立的으로 運營한다는 것은 情報要求者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圖書館 運營이라고 할 수 있다. User들에게 多様な 情報資料들을 提供하기 위한 Intranet과 같은 情報技術 (Information Technology)의 發展은 圖書館情報Service分野에 많은 影響을 미치므로 이에 司書들은 各種 最新情報技術을 圖書館에서 活用하게끔 많은 努力이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5. Intranet構築

Intranet을 構築하는 일은 크게 一般 User들을 위한 Menu와 司書들을 위한 Menu로 크게 나눌 수 있다. 一般 User들을 위한 Menu에는 檢索과 圖書館 利用案内, 參考質議 와 같은 部分이고 司書들을 위한 Menu에는 CD-Rom檢索, 收書一般, Data目錄, 收書行政과 같은 分野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 內部 職員들을 위한 內部用과 User를 위한 外部用으로 確實히 區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ser를 위한 Menu에서도 User를 區分할 必要가 있다. 大學圖書館에서는 大學生들만을 위한 Menu가 있을 것이고 其他 外部人들도 쉽게 活用할 수 있는 Menu도 함께 提供할 수 있다. 大學圖書館 內部職員을 위한 Menu에서도 擔當하고 있는 業務에 따라 接近을 許容할 수 있는 範圍를 制限하게 된다. 收書を 擔當하는 部署에 貸出을 擔當하는 司書가 接近할 必要는 없다는 것이다. 大學圖書館 業務를 圓滿하게 修行하기 위한 Intranet構築에 있어서 위의 部分을 正確히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IV. 大學圖書館 Homepage運營

1. Homepage運營

Internet이 研究目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開放된 以後부터 많은 大學에서 Web을 통한 情報活動을 하기 위하여 Homepage를 構築하고 있다. 이미 Homepage는 보다 多様な 멀티미디어情報를 提供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媒體로서 認定을 받고 있어 Intranet은 바로 Homepage가 構築可能하기 때문에 Intranet도 可能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Homepage가 大學에서는 모든 DataBase情報資料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必修要素라고 認定하고 있다. Internet을 活用하는 많은 User들을 相對로 Homepage를 構築하여 모든 最新 情報를 적절히 提供해 주어야 할 것이다.

Homepage를 製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Web Site를 構築하고 成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分明히 確立되어야 그 目的을 이룰 수 있다. 分명한 目的과 對象이 없으면 時間과 經費만 消費하는 結果를 낳는다. 明確한 目的과 細心한 準備는 Web Site構築에 가장 核心的인 成功要因이다. 고로, 大學이 追求하는 特定한 目的이 없이 단지 Data資料를 Internet에서 檢索할 수 있게만 System을 運營한다면 Homepage의 包括的效果는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現在 圖書館을 利用하지 않는 User들이 WebSite를 構築하였다고 얼마나 더 많은 利用자들이 圖書館을 통하여 情報에 대한 보다 큰 滿足을 갖겠는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ebSite는 User들에게 圖書館의 情報를 좀더 效率的이고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 情報에 대한 滿足을 높이는데 있어야 利用者들로부터 最適의 圖書館으로 認識 될 것이다. 또한 空間的 時間的 技術的으로 制限을 받던 既存의 圖書館이 WebSite를 構築함으로써 아무런 制限을 받지 않고 充分한 情報 滿足을 느낄 수 있는 圖書館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훌륭하고 包括的인 Homepage를 構築하려면 다음과 같은 事項을 考慮 하여야 할 것이다. 첫번째, WebSite 構築目的을 우선 確立한다. 주어진 豫算으로 情報化社會에 무작정 同參하기 위하여 단순히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왕 만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圖書館 利用者들로부터 多様な 意見을 聽取하고 그들에게 보다 便利하고 수준 높은 情報Service를 하는데 그 目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司書들의 多様な 意見을 聽取하여 全員이 同參하는

Homepage를 만들어야 한다. 外部 製作業者들과 電算擔當者들에게만 맡겨서는 情報 Service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훌륭한 WebSite가 誕生하기는 어렵다. 두번째, WebSite는 動的이어야 된다. 圖書館 Homepage는 한 번의 構築으로 오랜 기간동안 새로운 情報로 更新하지 않으면 그 高附加價値는 갈수록 下落 한다. 물론 圖書館은 항상 새로운 책들이 DataBase化되어 많은 圖書情報들이 更新되고 있지만 利用者들은 WebSite로 그런 情報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利用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情報들을 항상 準備하고 있어야 한다. 工學分野 主題司書가 工學分野 利用者들을 對象으로 Homepage를 構築한다면 工業發展 動向과 工學研究의 새로운 學說에 대하여 優先的으로 신신하고 最新成 있는 DB情報를 摺得 貯藏하여 Homepage를 運營管理 하여야 高附加價値가 있는 WebSite로 確認받을 것이다. 세번째, WebSite에 貯藏할 內容은 매우 간단 明瞭하게 하여야 한다. 所屬 圖書館을 소개 또는 他 圖書館을 Link만 하여 必要 以上の 많은 Graphic로 構成되어 있으면 利用者들은 별로 興味를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네번째, 자신의 WebSite 利用者를 DB情報分野 別로 정하여야 한다. 大學圖書館에서는 教授, 學生, 教職員들로 利用對象者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圖書館을 構成하는 全體 司書들이 하나의 專門分野를 정하여 學問分野別로 主題를 細分하여 DB情報奉仕를 한다면 圖書館에 대해 보다 深度 있게 認識하게 된다. 다섯번째, Homepage WebSite는 世界的으로 活用되어야 한다. 國內의 모든 User를 비롯하여 外國의 모든 User들이 活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外國語로 翻譯할 必要가 있지만 全體를 翻譯하기 어려우면 最小限의 Menu라도 外國인이 理解할 수 있게 Internet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英語로 소개하는 Site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東洋圈에서는 日語, 中國語 등의 WebSite를 만들어 놓으며 錦上添花 일 것이다.

2. Homepage작성시 留意事項

Homepage는 21C 情報化社會에서 公共의 利益을 위한 平生教育의 場으로서 教育的인 比重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大學圖書館 Homepage는 假想的 空間이라 이동성이 쉬운 점이 있으나 한 번 구축한 WebSite 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용도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更新하여야 한다. 大學圖書館이 소장하고 있는 DB정보를 Web에 올리는 일은 자신의 所屬圖書館資料를

全世界에 公開하여 共同 利用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情報를 共同 이용하게 되면 보다 많은 DB情報를 User들에게도 충분히 奉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Homepage를 構築만하고 새로운 情報을 繼續 追加하지 않으면 Homepage를 一時的 活用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User들은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내용을 更新하여 繼續으로 管理되고 있다는 連續成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WebSite의 長點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빠르고 쉽게 內容을 更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內容을 更新하기 위하여 Homepage의 全體 構造를 자주 바꾸는 일은 利用者들에게 混亂만 招來하는 結果를 낳는다. 可及의이면 Homepage의 全體의인 構造는 變更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內容을 更新하도록 하여 利用者들로 하여금 安定된 狀態에서 Homepage를 探索할 수 있도록 一貫性을 維持하여야 할 것이다. 고로, 유의할 점은, 첫번째, 이미지를 위한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止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omepage는 Quality爲主로 製作되어야 한다. 우아한 Graphic技術을 使用하여 Homepage를 過大 包裝하는 일은 利用者들의 視線을 集中 하기에 一時的일 뿐이고 오히려 接續하는 時間만 빼앗기 때문에 利用者들을 짜증나게 만들수도 있다. 두번째, Homepage製作을 위한 HTML의 Version은 될 수 있다면 普通 通常의으로 많이 活用하는 Version을 活用하는 것이 좋다. HTML이 새로운 Version으로 更新되는 주기는 대략 "6~12個月"이 所要되고 있어 普通 利用者들이 活用하는 웹브라우저들은 여기에 빠르게 適應하지 못하므로 最新의 버전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로, 최근 Version을 꼭 活用하고 싶다면 製作한 Homepage를 HTML의 버전으로 해두면 좋다. 세번째, Webpage製作者나 運營者들의 E-mail과 姓名을 右側 下壇에 入力 表記하도록 한다. 이때, E-mail住所를 같이 入力하는 것이 좋다. 利用者들은 必要에 따라 Homepage를 製作하기 때문에 製作할 경우 E-mail住所가 나타나게 해 줌으로서 重要한 資料로 使用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 利用者들의 WebSite探索時 方向을 잡아 주기 위해 各 Homepage는 Homepage全體를 案内하는 길잡이를 항상 表記해 주는 것이 좋다. Homepage를 만드는 巨視的인 理由는 利用者들이 情報化社會에서 必要한 많은 有益한 情報를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大學圖書館은 主要 對象者가 教授, 學生, 教職員들이다. Intranet은 이 中에서도 教授들을 위한 多樣한 DB奉仕 (Current Content Service, Internet Site分類, 購入圖書要求) 등을 할 수 있다. 또 司書들을 主題別로 나누어 E-mail을 利用한 參考奉仕에 應答해 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CD-ROM과 같은 경우는 大學內에서만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보다

는 個人別ID를 附與하여 언제라도 CD-ROM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V. 21C 圖書館 模型

現, 圖書館의 業務에는 大略的으로 1)情報와 知識의 蓄積 및 保存 2)情報와 知識의 分類 3)參考奉仕 4)情報利用教育 5)情報와 知識의 分配等 印刷媒體 爲主로 되어 있는 反面에 情報管理System은 Digital化된 資料 爲主라는 것도 하나의 差異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 大學圖書館 대부분은 이미 Digital化된 資料로 收集 및 分類, 奉仕를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보면 단지 構成員이 같은 Network에서 定해진 形式에 맞추어 스스로 情報를 整形化하는 것만이 差異가 있다. 그 동안 大學圖書館이 蓄積한 DB情報도 주로 大學 內部的 情報를 包含하여 그 機關에서 필요한 外部的 DB情報들을 蓄積하고 있는 境遇가 대부분이다. 또 外部的 情報는 現在 大學圖書館 相互貸借制度를 利用하면 언제든지 必要한 情報를 쉽게 收集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大學圖書館의 業務가 情報管理System의 業務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蓄積된 資源도 情報管理System이 蓄積하고자 하는 것과 거의 똑 같다. 資源面에서 보면 비록 外部DB情報의 收集과 活用에는 情報管理System이 더 效率的이지만 内部情報는 現在 構築되어 있는 大學圖書館DB를 活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狀況으로 볼때 現在, 大學圖書館 人員을 더욱 補强하여 管理 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綜合情報管理System을 構築하여 綜合運營管理하던지 兩者間에 決斷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管理者 側面에서 綜合情報管理System을 보면 現在의 大學圖書館System이 Network化된 社會에서 그 技能을 충분히 發揮 못하였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에 新 概念의 綜合情報 活用 方案을 講究 方案으로 綜合情報管理System을 構築하려고 할 것이고, 反對로 大學圖書館 側面에서 보면 새로운 Network環境에 새로운 模襲으로 適應할 수 있는 21世紀 大學圖書館 模型을 갖추는데 있어서 充分한 準備가 되어 있다고 생각 하지만 새로운 環境과 물밀 듯 밀려오는 수 많은 情報의 洪水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이러한 部分만 大學圖書館에서 解決할 수 있으면 情報管理System은 圖書館에서 綜合管理하는 것이 보다 效率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情報管理가 圖書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理由만으로 앞으로는 繼續的으로 圖書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現在 能力面에

서不信을 받은 大學圖書館들의 境遇에는 더욱 그렇다. 그 동안 大學圖書館에 대하여不信을 갖고 있는 일부 管理者들은 大學圖書館에 대하여 새로운 機會를 주지 않고 다른 方向으로 問題를 解決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不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大學圖書館 司書들은 Network環境에서 새롭게 變化하는 大學圖書館System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1. IMS構築

IMS를 導入하고자 한다면 왜 導入하여야 하고 導入하게 되면 어떻게 運營할 것이며 그 責任者は 누구로 할 것인가를 면밀히 檢討한 後에 決定하여야 한다. 특히 導入하고자 하는 理由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現在의 情報流通의 問題點을 명확히 分析하여야 한다. 대부분 情報은 個人的인 情報貯藏倉庫나 Intranet 혹은 圖書館에 간혀있다. 가끔 情報을 保護하기 위해 技術的으로 接近을 故意的으로 遮斷하고 있는 境遇가 있지만 情報의 所在 把握이 어려운 경우에 利用者들은 情報의 不足 infofamine(情報枯渴症)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組織의 構成員들이 情報에 대한 신선한 枯渴證을 느끼고 그것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組織의 情報가 保管되어 있는 圖書館이나 기타 Intranet의 情報現況을 正確히 把握하고 여기에 쉽게 接近할 수 있는 方法을 考案해내는 作業이 優先되어야 한다. 이 過程에서 司書들은 특히 圖書館의 役割에 대하여 具體的인 問題點까지 分析하여 情報管理System에 쉽게 適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情報管理System을 導入하기로 하였다면 대부분의 主體는 司書들이 되어야 한다. 司書들은 일단 基本的인 System 構築作業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基盤 位를 다니는 高附加價值情報과 새로운 DB情報의 管理에는 技術的인 面에서 조금은 未熟할 것이다. 그러나 大學圖書館에서 IMS를 導入하고자 하는 가장 큰 理由는 組織內에 情報가 圓滑하게 흐르도록 그 System을 可動하자는데 있다. 이르기 위해서는 新DB情報를 빠르게 收集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속히 全體로 퍼뜨릴 수 있어야 된다. 그 過程에서 情報의 흐름을 妨害하는 組織內 모든 障礙物을 除去하여야 한다. 그 하나의 方法으로 現在의 모든 System을 情報管理System으로 綜合하여 統一하여 組織이 만들어내는 새롭고 알찬 모든 情報를 신속히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情報蓄積

정보를 축적하는 일은 大學圖書館의 주된 業務인 同時에 情報管理System의 가장 基本이다. 情報管理System이 蓄積할 수 있는 情報은 크게 內部情報과 外部情報로 나눌 수 있고 外部情報은 既存의 圖書館이 收集해오던 形態의 여러 가지 情報을 가리킨다. 반면에 內部情報은 다시 個人的 情報과 組織의 情報로 나눌 수 있다. 個人的 情報은 組織 構成員들 個個人이 지니고 있는 情報, 技術, 經驗等을 일컫는 것인 반면에 組織의 情報은 圖書館 全體나 혹은 各 部署의 組織別로 發生되는 情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情報System, 大學Image, DataBase等이 있다. 個人的인 情報들은 個別的인 아닌 相互作用을 통한 結合物形態를 될 때 즉 組織內에서 公有될 수 있을 때 情報로서 진정한 價値를 認定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組織의 情報化 되어 大學이나 各機關의 競爭力과 生産性を 向上시킬 수 있다. 組織의 情報은 個人的인 Data에서 收集한 情報을 組織의 次元에서 만들어지는 無形의 資産으로서 組織員들이 所屬 大學을 떠나도 남게 되는 特徵이 있는 反面에 個人的인 情報은 個人이 大學을 떠나면 함께 떠나는 것에서 差異가 있다. 그러므로 情報管理System은 組織에서 個人이 大學을 떠나도 個人이 所有하고 있던 모든 情報을 組織에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各種 동기를 부여하여 組織的인 情報로 強化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個人들이 收集 또는 生産한 情報을 組織化하여 組織的인 情報가 되었을 때만이 附加價値가 向上되고 資料로서 管理가 된다.

外部情報에는 既存의 圖書館이 해오던 情報 즉 新聞記事情報, 學會 및 Semina情報, 單行本圖書, 定期刊行物情報, 政府發行者, Internet資源, 其他 常用DataBase等을 組織構成員들이 活用하기 쉽게 表面化하여 언제든지 必要的 情報에 User들이 接近할 수 있도록 모든 情報 및 DataBase를 蓄積하여 새로운 環境을 계속 提供하여야 한다.

3. SDI서비스

SDI서비스는 DIALOG의 Alert서비스나 LEXIS/NEXIS의 Eclipse와 같이 常用DB의 情報을 E-mail을 活用하여 提供하는 서비스. Push技術을 利用한 채서비스,

Push技術과 E-mail을 混合하여 利用者에게 直接 Web文書를 보내주는 E-mail서비스, 작은 規模로 저널의 目次複寫서비스나 혹은 新聞 클리핑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利用者에게 주기적으로 直接 情報를 提供하는 서비스 等이다. 위에서 말한 DIALOG의 Alert 서비스나 LEXIS/NEXIS의 Eclipse와 같은 서비스는 外部의 DB를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SDI서비스인 反面에 情報管理Center에서 自體的으로 收集 및 生産하는 情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構成員들에게 必要한 情報를 수시로 提供해 줄 수 있어야 한다. 情報管理System이 아무리 情報를 體系的으로 蓄積해 놓고 있어도 그것을 利用하지 않으면 아무런 所用이 없다. 傳統的인 圖書館에도 많은 情報가 가득한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나 그 利用律은 매우 低潮하다. 이런 점을 補完하기 위한 情報管理System은 利用者들에게 필요한 情報를 利用者들의 PC에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長點으로서 利用者は 자신이 必要한 情報를 事前에 登錄만 해놓으면 該當하는 情報가 發生하는 즉시 자신의 PC에서 바로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現在의 大學圖書館에서는 利用者들이 圖書館을 찾아왔지만 情報管理System에서는 圖書館이 利用者들을 찾아가는 方法이다. 그래서 情報管理System에서는 利用者들이 원하는 情報를 把握하여 E-mail이나 Push技術을 活用하여 個人에게 直接 傳達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大學圖書館 利用者들은 자신의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 必要한 情報를 찾는다는 積極的이지 못하였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情報管理System의 成功은 바로 利用者들에게 必要한 情報를 얼마나 빠르게 傳達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VI. 司書의 役割과 方向

現在의 圖書館System을 繼續 開發維持하고 Network와 情報化社會에 맞는 새로운 變化에 適應할 수 없는 圖書館 司書라면 組織에 있어서는 쓰레기 같은 存在일 것이다. 그러므로 21C와 같은 尖端社會에서 는 오히려 圖書館 司書들이 이 重推의인 일을 맡아 모든 情報分野에서 核心的인 位置에 安着할 수 있도록 司書들의 努力이 정말로 질실한 때이다. 또 司書들이 이러한 일들을 充分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司書들은 이러한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司書들은 大學에서 一般的으로 情報管理를 위한 正規科目을 集中的으로 배우고 난 後에야 正式 司書가 된다. 正規科目으로 배우는 것에는 情報社會論, 資料分類論, 情報檢索論, DataBase論, 出版著作權論, 文獻保存法, Internet資料檢索論, 圖書館經營論 등의 必修科目을 履修하고

現職에 配置된 司書들은 各種 情報System을 비롯하여 Web出版과 情報通信에 關聯된 多様な 業務를 修行하고 있다. 이와 같이 司書들은 知識情報管理에 關聯된 모든 資料情報를 갖추고 있는 境遇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情報管理System에서 要求하는 情報管理者들의 能力을 兼備한 職業은 司書 以外에 다른 職業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司書들이 情報管理System을 充分히 管理할 수 있다는 根據로서 첫번째, 司書들은 圖書館만이 所藏하고 있는 資料를 지키거나 단순히 System을 管理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Intranet에 새로운 情報과 資料들을 꾸준히 올림으로서 利用者가 情報를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役割을 하고 있다. 특히 活性化된 大學圖書館의 境遇에는 大學에서 情報를 創造하기 위해 活用되는 內部的인 研究報告書, 大學學術資料등과 같이 大學에서 必要한 DB資料를 신속히 提供하여 利用者로 하여금 새로운 情報를 創出하는데 積極的인 支援을 하고 있다. 둘째, 司書들은 수많은 情報를 分析하고 要約한 情報를 提供해 주는 技能을 하고 있다. 情報化社會에서는 情報가 爆發的으로 늘어남에 따라 檢索하는 方法도 계속 發展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檢索結果가 너무 많으면 情報需要者들은 要約되고 分析된 DB情報를 찾게 된다. 情報를 選別 및 分析하는 데는 大學이나 研究所, 혹은 大學에 맞는 정보원에 焦點을 맞추어야하고 利用者들이 읽기 쉽게 單純化할 수 있는 能力을 發揮하고 있다. 셋째, 司書들은 組織內에서 情報基盤構造에 一翼을 擔當하여 情報를 收集하고 整理된 狀態에서 다른 사람이 繼續的으로 情報를 追加하고 利用할 수 있는 環境을 提供하고 있다. 넷째, 司書들은 外部의 技術開發에 必要한 情報를 收集하고 配布하는 일에 익숙하다. 다섯째, 司書들은 外部情報의 情報化에 中樞的인 役割을 할 수 있다. 內部情報는 各 構成員들이 스스로 蓄積하지만 外部情報는 바로 司書를 통해 入手되는 情報들이 대부분이다. 圖書館을 통해 入手되는 情報는 研究活動에 매우 重要한 要素들로서 이런 外部情報를 收集, 分析, 整理하여 提供하는 일은 바로 司書들이 既存에 하고 있는 일들이다. 여섯째, 司書들은 必要에 따라 Push技術로 構成員들에게 必要한 情報를 제때에 提供하고 있다. 이와 같이 情報管理System에서도 司書들이 할 수 있는 役割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情報檢索過程의 일부는 司書의 도움 없이 누구든지 必要한 情報는 즉시 찾아볼 수 있지만 司書는 情報收集, 分類, 流通過程에서 主導的인 役割을 할 수 있는 唯一한 專門職業이라는 것은 確實하다. 司書들이 이러한 長點을 갖고 있음에도 不久하고 現在의 대부분의 大學 情報管理System은 司書들이 아닌 電算分野專門家들로 構成되어 作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現象은 司書들이 既存의 圖書館 業務에만 集中하다보니 實際로 자신이 담당하여야 할 期會를 상실하고 있는 境遇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情報管理System은 始作段階

에 있다. 지금부터라도 大學을 비롯하여 많은 組織의 司書들은 情報管理System에 맞는 圖書館環境으로 바꾸어 情報管理System에서 情報管理할 수 있는 能力있는 司書로서 變身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 情報管理System은 司書들에게는 變身을 強要하고 있는 동시에 將來에는 組織의 chief information officer 또는 chief knowledge officer로서 役割을 굳힐 수 있는 絶好의 기회를 提供하기도 하다. 고로,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21世紀의 司書라는 職業은 없어질지도 모르는 매우 困難스럽고 어려운 處地가 될지도 모른다.

VII. 끝내면서

圖書館은 새로운 情報技術開發에 많은 投資를 하여야 하고 情報開發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새로운 情報가 必要하다. 適切한 情報를 必要한 사람에게 제때에 供給한다는 것은 技術開發段階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美國을 비롯한 몇몇 先進國은 이미 情報社會로 進入하는 過程에서 많은 어려운 過程을 거쳤다. 現在의 大學圖書館은 組織 構成員들이 보유한 非整形化된 情報를 蓄積할 수 있는 方法이 없었지만 情報管理System은 Intranet을 利用하여 各 構成員 혹은 部署別로 生産되는 情報를 多樣하게 蓄積할 수 있는 것과 또 現在의 大學圖書館에서는 User가 必要한 DB情報를 위하여 圖書館을 찾아왔지만 情報管理System에서는 모든 DB정보를 갖추고 User들에게 直接 接近한다는 것이 큰 差異點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情報의 蓄積과 參考奉仕와 같은 것이 대부분 유사한 分野로 겹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情報管理System을 圖書館과 統合하여 하나의 情報管理System으로서 그 技能을 發揮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現在, IMF로 비록 經濟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現實이지만 Internet으로 인해 情報과 知識이 産業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形成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情報를 管理해야 하는 圖書館과 司書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圖書館과 司書들은 情報管理System의 長點을 積極적으로 導入하여 IMS와 User가 有機體가 되게끔 하여야 하고, 情報를 원하는 모든 利用者들에게 情報가 바로바로 投入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이러한 情報有機體가 제대로 運營된다면 이제 새로운 情報를 蓄積하여 다시 한 번 大學圖書館은 새롭게 깨어날 것이요, 情報를 渴求하는 모든 User들이 다른 角度로 大學圖書館과 司書들을 바라볼 것을 確信하며 이만 글을 끝내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최석두. "미래사서의 역할". 도서관문화. Vol. 34, No.5 pp.321-327. 1993
- 한유경. "2010년 교육환경의 변화". 정보화저널, 제4권, 제2호 pp67-80, 1997
- 손정표. "21세기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에 관한 고찰". 도서관 문화 Vol. 37, No. 5.
- 기민호. "미래의 도서관 봉사". 도서관문화 Vol. 34, No. 5.
- 정준민. "정보사회를 대비한 대학도서관 개념의 재정립". 한국문헌 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집, pp.73-94. 1995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 1995
- 이우범. "전자미디어의 개발과 미래도서관의 역할". 국회도서관보. 200호, pp33-43
- 강은영. "대학도서관 이용자서비스의 평가". 도서관문화 Vol. 39, No.1.
- 정진식. "정보미디어조직론". 서울, 학문사, 1997
- 최두현. "전자도서관을 위한 정보검색 지능형 에이전트". 정보과학지. 93호. pp29-37
- 유사라. "하이퍼미디어 도서관 정보시스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8